

<2023 인천미술_올해의 작가>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총평

‘인천미술_올해의 작가’가 인천 미술 발전에 큰 기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. 지역 연고, 연배, 작품 성향 등 여러 논쟁적인 관점들이 있을 수 있으나, 심의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작가로 오원배를 선정하였습니다. 오원배 작가는 21세기 동시대 지식사회 담론의 하나인 ‘인공지능과 로봇테크놀로지’를 창작 배경으로 설정하여 현대인들이 겪는 압박과 실존적 문제를 예술 작품으로 표상하는 작가입니다. 또한 제1회 <인천미술_올해의 작가>로서 인천문화예술 생산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의 대상으로 선정한 후 심사위원 전원의 일치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.

인천을 기반으로 성장한 작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심의를 통해 인천 출신 작가군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것이 심의위원회의 큰 소득이었습니다.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, 출향하였으나 인천인의 자긍심을 잃지 않고 활동한 작가 등 다양한 작가군을 만났습니다. 이들 중 현재 국내외에서 거둔 작가로서의 탁월한 창작적 명성과 활동에 주안을 두었는데, 그것은 1회라는 상징을 갖는 이 행사가 많은 작가를 포용하고,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. 심의위원의 고민과 행사에 대한 이해, 전망에 대한 식견으로 선정한 오원배 작가는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까지 잘 수행하여 현장감 넘치는 인천 미술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합니다.

끝까지 논쟁의 테이블 위에 오른 작가들이 있었으나, 차기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
2023.5.9.

심의위원장 : 김영호 (중앙대학교 교수)

심의위원 : 심상용 (서울대학교 교수)

심의위원 : 조은정 (고려대학교 교수)